

# 신안 하의도 ~ 신의도 연도교 공사 탄력

## 잔여사업비 208억 내년 예산 반영

### 국회부의장·새누리 원내대표 약속

섬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신안군 하의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사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15일 동서 화합포럼의 첫 행사인 김대중 대통령령의 고향인 하의도 방문 길에 동반한 이병석 국회의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하의~신의 연도교 잔여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신안군은 최 원내대표가 하의~신의 연도교 잔여 사업비 208억원 전액

을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15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박지현 전 원내대표도 연도교 예산지원과 관련 "최 원내대표가 만약 국비전환이 어렵다면 전남도에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의~신의 연도교가 조기 완공될 경우 경북지역 새누리당 의원과 전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의 첫 성과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의~신의 연도교는 신안 다이나몬드 제도를 연결하는 최남단 중심부 도로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밀려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도가 478억원을 투입해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박우람 군수는 "정당과 지역의 벽을 허물고 하의~신의 연도교에 관심을 표명한 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도교가 국비지원을 받아 조기 개통돼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뿌리인 경북과 전남지역 출신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은 오는 3월 경북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88고속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조기 완공하기로 한 바 있다.

신안=이상성기자 sslee@

# 서남권 여객선 수송 사상 최대

## 작년 이용객 670만명... 전년도보다 12% ↑

지난해 전남 서남권 연안여객선 여객 수송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16일 "지난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669만4000여명으로 지난 2012년(595만2000여명)보다 12%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풍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등 기상 상황이 양호한 데다 신안, 완도, 청산도 등에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로는 목포~홍도 간 항로가 85만5000명이었다. 전년(64만5000명)보다 32% 증가했다.

다음으로 완도항~청산도 항로가 66만4000명으로 (54만9000명)보다 21% 늘었다.

목포~제주 항로도 전년보다 9% 증가한 6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박성복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 서비스 개선 및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합평, 영농지원 사업 20일까지 신청

합평군은 16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4년 영농지원 및 기술보급분야 사업을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4년 농정분야 지원사업에는 총 사업비 33억1800만원이 투입되며 ▲고품질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조성 ▲유기농산물생산 생태마을 시범육성 ▲단호박 공중착과 재배터 설치

지원 ▲팔기 우량모종 경신지원 등 38개 사업에 대해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로 문의(061-320-2469)하거나 홈페이지(http://www.hp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 완도군청 정기만실장 공직생활 마감 공로연수

완도군청 정기만 기획예산실장(4급)이 정년 1년을 앞두고 1월16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정 실장은 완도 신지 출신으로 1973년 신지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 기획계장 등 헌업과 지원부서를 두루 거쳤다.

지난 1990년대 받았을 3

개월만에 농어촌발전중앙기 계획 수립, 타시군의 벤치마킹한 사례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 추운 겨울 녹이는 따뜻한 포상금

## 해남군 복지행정상 1000만원 이웃돕기 기탁 완도 '고급면 기업유치위' 500만원 박람회

일을 잘해 받은 포상금을 뜻깊게 쓴 주민과 공무원이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급면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유치 대상 평가에서 우수 읍면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500만원 전액을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후원금으로 맡겼다.

고급면 번영회도 박람회 성공 개최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냈다.

해남군은 복지행정상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을 겨울나기 희망이불로 군민과 함께 나눴다.

군은 지난달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불우이웃 128명에게 이불을 사 전달했다.

이 포상금은 2013년도 복지행정상 보건·복지연계협력 부문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받은 상금이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해남=박희성기자 dia@



경로당 찾은 주치의. 최근 경로당을 찾은 주치의가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가 경로당 주치의 제도 등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건강 지원체계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목포시 제공>

# 전북

## 군수 홍보 영상물 선거법 위반?

김호수 부안군수가 군 예산으로 제작된 부안 농특산물 누에투구 홍보 영상물에 모델로 나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부안군과 지역주민들에게 있다.

실제로 지역주민인 정모(57)씨는 "사우나 및 생필품 마트가 있는 리조트 업체에 매일 지역민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이 같은 장소에 군수가 출연하는 홍보 영상물을 계속 방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청 측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알아본 뒤 위법 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입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93조 및 254조는 단체장 소관 사무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홍보영상·테이프 녹화 등에 출연할 수도 없고 방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부안=김형수기자 knews@

# 순창 방축마을 리모델링 이달 착수

## 주민참여형 개발... 72억 들여 노후주택 개보수 등

순창군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선정된 금과면 방축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이달 본격 착수했다.

국비 20억원 등 7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 내 공용토지의 합리적 배제, 슬레이트 철거 및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등으로 나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마을 환경 형성, 공공어린이집도 신축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마을주민 역량강화와 전문가 워크숍, 마을주민위원회 및 군주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완료했다.

사업 준공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개발방식을 적용해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과 에너지 효율화 및 공동생활 지원사업은 보조형식으로 지원되며,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빈집정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 자부담이 따른다. 또 농촌주택 신축시에는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

기존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마을 정비와 주택개량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군은 기반시설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정비,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신재생에너지,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을 모두 한꺼번에 시행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군 사회중 농촌주택담당은 "제2의 새마을운동격이라 볼 수 있는 방축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낙후된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새마을 변화되는 농촌마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마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 고창, 장애인 콜택시 센터 개소식

고창군은 지난 15일 군민복지회관에서 장애인 콜택시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해 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관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장착된 택시를 구입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급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으며, 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50% 이하로 저렴하다. 군은 최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수탁기관으로 (사)한두레장애인복지회(대표 박영환)를 선정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남원농기센터, 멜론 시들음증 예방 연구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올해 '고온기 멜론 시들음증 예방을 위한 대목선발' 현장공동 연구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남원시 송동·금차·주생면은 중심으로 130여 농가가 50ha의 멜론을 재배해 연간 4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7~8월 고온으로 시들음증 발생으로 상품성이 하락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멜론 주산지인 송동·금차면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현장공동 연구사업을 추진, 당도도 높고 시들음증도 극복할 수 있는 대목을 선별해 멜론재배 농가에 공급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순창, 32억 들여 농촌지도 시범사업

순창군이 올해 32억원을 투입해 17개 농촌지도 시범사업과 농촌지도 지원 12개사업 등 총 29개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3일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에서 2014년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기준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작목반 등이며, 각 사업별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신청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063-650-5121, 515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 초산동 작은도서관 개관

초산동 작은도서관이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정읍시에서 9번째로 문을 연 초산동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건물 3층에 들어섰다.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이 투입됐고, 82㎡(25평)의 규모다. 초산동 작은 도서관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아동도서 등 모두 3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삼삼오오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각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도 설치돼 있다. 평일 오후 1시~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동초제 창시자 김연수 예술혼 조명 책 발간

현대 판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동초제(東超制)의 창시자 김연수(1907~1974)의 생애와 판소리를 집중 조명할 책이 발간됐다.

최동원 군산대 교수는 김기형 고려대 교수, 김석배 금오공과대 교수, 김종철 서울대 교수 등 10명의 저자와 함께 동초 김연수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의 지원을 받아 '동초 김연수의 생애와 판소리'를 펴냈다.

이 책은 김연수의 판소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기록으로 동초의 출생에서부터 업적, 그의 예술혼을 더듬어 간다.

또 동초제 판소리 다섯마당의 미학과 특징, 인물 형상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동초제는 여러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 중 좋은 점만 골라 재탄생시킨 판소리 계파로 동편제, 서편제, 만정제, 박죽주제, 보성제 등과 함께 국내에서 세가 큰 판소리 계파 중 하나다.

동초는 당대의 명창 유성준 문하에서 '수증가' 한관을 빼앗고, 서울에 올라와 '조선성악연구회'에 입회, 송만갑 문하에 입문하여 '흥부가'와 '심청가'를 배웠다.

/군산=박금성기자 전북취재본부장



김치 담그기 시연. 전주시의 음식 명인들이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서 위상을 알리고 김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치 담그는 시연을 했다. 우순덕 명인이 콩나물김치 담그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남뉴스